



전경련 국제동향

7월 3째주

국제본부 국제경제팀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① 동북특수강그룹, 40억 위안 규모 채권 디폴트
- ② 국자위, 중앙정부 국유기업 수 100여개로 축소 추진
- ③ '20년 중국 자동차 시장 생산과잉 우려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①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동향
- ② 경단련,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제언 발표
- ③ 일 경제4단체,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TPP 승인을 요청

3 이란 주요 건설기업 동향

- ① 이란의 건설업체
- ② 이란의 설계 및 감리 회사

4 쿠웨이트 주요 경제 동향

1 중국 주요 경제 및 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1-1 동북특수강그룹, 40억 위안 규모 채권 디폴트

- ‘16.3월 라오닝성(遼寧省)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 소속인 지방정부 국유기업 동북특수강그룹(東北特殊鋼集團)은 ‘15년 발행했던 제1차 단기 회사채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난으로 디폴트를 선언했으며, 이후 4개월간 만기가 도래한 ‘15년 발행한 제2차, 제3차 단기 회사채도 상환하지 못해, 총 40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가 디폴트 중
- 이에 대해 한 채권자는 ‘16.7.2일 개최된 라오닝성 상무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라오닝성 정부가 출자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 전체 부채 중 30%는 회사채로 유지하되 여타 70%는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거의 모든 투자자들이 이를 반대한다고 설명
- 상기 채권자는 과거 동북특수강은 출자전환을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바 있고, 더 나아가 정부 차원의 출자전환 정책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구조조정 방안이라며, 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
 - ‘16.5.25일 개최된 ‘13년 발행 제1차, 제2차 중장기 회사채 채권자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동북특수강에 출자전환 없이 채권 원리금 상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서면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했고, 동북특수강도 이에 동의
- 채권 발행인이 곧 동북특수강 부채 해결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바, 동북특수강 회사채 주간사인 국가개발은행은 ‘15년 발행된 동북특수강 1차, 2차 및 3차 단기 회사채 투자자를 대상으로 7.20(수) 채권자 회의를 개최할 예정
- 특히, 동북특수강이 아직까지도 ‘15년 재무 보고서와 ‘16년 1분기 재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바, 채권자들은 채권자 회의 개최 계기 재무 보고서 공개 및 주요 주주에 대한 기율 위반 여부 조사를 요구할 계획

1-2 국자위, 중앙정부 국유기업 수 100여개로 축소 추진

- 7. 14(목)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이하 ‘국자위’)는 언론 브리핑을 개최, ‘16년 상반기 중앙정부 국유기업 실적 통계 및 개혁 현황을 소개하는 동시에 ‘16년 연내 중앙정부 국유기업 간 합병 개혁을 확대, 총 100여개 기업으로 국유기업 수를 축소하겠다고 발표
- ‘15년의 경우 총 12개의 중앙정부 국유기업 합병을 통해 6개의 국유기업이 재탄생했으며, ‘16년에는 철강업 우강(武鋼)과 바오강(寶鋼), 건축업 중국건재(中國建材)와 중국중재그룹(中國中材集團)이 합병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 중국국려(中國國旅)와 홍콩중국여행그룹(中國港中旅集團) 간의 합병 작업이 완료되는 등 국유기업 합병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

※ ‘15년 12개 중앙정부 국유기업 통합 개요

- (철도 차량) 중국남차(中國南車)와 중국북차(中國北車)가 합병, 중국중차(中國中車) 설립
- (전기·에너지) 국가핵전공사(國家核電公司)와 중국전력공사(中國電力公司)가 합병, 국가전력투자 그룹(國家電力投者集團) 설립
- (대외 무역) 남광그룹(南光集團)과 주하이진융(珠海振戎)이 합병, 주하이진융이 남광그룹 자회사로 흡수 합병
- (금속·광물) 오광그룹(五礦集團)과 중국야금과공그룹(中國冶金科工集團)이 합병, 중국야금과공그룹이 오광그룹 자회사로 흡수 합병
- (해운) 중국원양그룹(中國遠洋集團)과 중국해운그룹(中國海運集團)이 합병, 중국원양해운그룹(中國遠洋海運集團) 설립
- (해운·물류) 외운장항(外運長航)과 초상국그룹(招商局集團)이 합병, 외운장항이 초상국그룹 자회사로 흡수 합병

- 또한 국자위는 △ ‘14년 첫 국유자본투자·운영공사 시범대상 기업으로 중량그룹(中糧集團), 중국개발투자공사(中國開發投資公司)을 선정하는데 이어, ‘16년 상반기 △청통그룹(誠通集團), 중국국신유한공사(中國國新有限公司)를 국유자본운영공사* 시범대상 기업으로 추가 지정하고, △신화그룹(神華集團), 바오강, 우강, 중국오광(中國五礦), 초상국그룹(招商局集團), 중국교통건설그룹(中國交通建設集團) 및 보리그룹(保利集團)을 국유자본투자공사 시범대상 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발표

- 국유자본운영공사는 국유자본, 국유기업의 주식·지분 등을 운용하고, 금융 시장 투자는 가능하나, 실업(實業)분야 투자는 불가능

- 국유자본투자공사는 국유자본, 국유기업의 주식·지분 운용, 금융 시장 투자와 각종 실업분야 프로젝트 투자도 가능
- 이 외에도, 국자위 담당자는 국유기업 합병 등 개혁 조치 외에도 ‘국유자본 벤처 투자 기금’과 ‘국유기업 구조 조정 기금’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밀접한 중요 업종 및 핵심 분야,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국유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설립·운영할 계획이라고 소개

1-3

‘20년 중국 자동차 시장 생산과잉 우려

- 7.14(목)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는 △상하이자동차(上海汽車), △동펑자동차(東風汽車), △제일자동차(第一汽車), △창안자동차(長安汽車), △베이징자동차(北京汽車) 및 △광저우자동차(廣州汽車) 등 국내 6대 자동차 브랜드의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생산·판매량 목표치를 인용, 자동차 생산을 억제하지 않을 경우 ‘20년 심각한 생산과잉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도
- 상기 언론은 국내 6대 자동차 브랜드들의 13차 5개년 계획 기간 생산·판매량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약 3,000 만대의 자동차가 생산되어야 하며, 6대 자동차 브랜드를 제외한 화천자동차(華晨汽車), 창청자동차(長城汽車), 장화이자동차(江淮汽車) 등 여타 중국 국산 자동차 생산자의 생산·판매량 목표를 포함할 경우 ‘20년 중국 국산 자동차 생산자의 연간 생산량이 5,000만대를 웃돌 것으로 추산
- 한편 자동차 업계 전문가인 링칭(凌靑)은 ‘15년 전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약 2,450만대로 각각 전년 동기대비 3.3%와 4.7% 상승했고, 매년 판매량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15년 통계를 기준으로 매년 5%씩 성장한다고 추산할 경우 ‘20년 전국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3,100만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
- 전문가들은 각 급(級) 정부 부처와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 생산과잉 문제를 경계하고 무분별한 시설 확장과 투자를 지양해야 하며, 동시에 신기술, 신제품 연구 개발과 산업화 수준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증진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

2 일본 주요 산업 및 대외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2-1 일본의 경제재정자문회의 동향

1.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

- 아베총리는 2016년 제12차 경제재정자문회의(7.13, 의장: 아베총리)에서 2016년도에는 최저임금 3% 인상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해 줄 것을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에게 당부
 - 특히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상승을 감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짐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
- (동향) 아베총리는 2015.11.24.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을 매년 3% 정도 인상하여 전국 가중평균으로 시급 1,000엔을 목표로 할 것을 제시
 - 동 목표가 포함된 2016년도 경제재정의 기본방침(骨太方針)·1억총 활약플랜·2016년도 성장전략이 2016.6.2 각의 결정
- (전망) 2016년도에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 위해서는 24엔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에서 7월말경 기준을 제시하면 8월경 각 지방 심의회에서 각각 최저임금(2015년도 동경 전년도 대비 19엔 증가한 907엔, 오키나와 16엔 증가한 693엔 등)을 결정하고 10월부터 적용

2. 재정건전화 관련 논의

- 일본정부의 기초재정수지(PB) 목표와 관련, 동 회의 민간위원(이토 모토시게 교수 등 4명)은 2020년도 PB 흑자전환 목표 견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2018년도 PB 중간목표(GDP 대비 1%(5-6조엔)로 축소)에 대해서는 과도한 세출억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적절한 대응'을 제안
 - 2015년도 PB가 16.6조엔 적자를 기록한데다 소비세 추가인상이 2019.10월로 재연기되어 목표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지출을 무리하게 축소할 경우 오히려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
 -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지 말고, 특별회계 등의 활용을 제안

3. 1억총활약사회 시책 예산 등 2017년도 예산편성 기준 관련 논의 착수

- 아베총리는 1억총활약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아베노믹스의 성과 활용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일본정부는 1억총활약사회를 위해 육아 및 간병에 의한 이직을 막고, 누구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목표 하에서 보육교사 및 간병인 임금인상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추경보다는 2017년도 본예산을 통해 확보한다는 입장이나 동 회의에서 민간위원과 정부(재무성)간 입장차
 - 동 회의 민간위원은 2015년도 결산 중 당초 전망을 상회하는 세수 중 특수요인을 제외한 1.7조엔을 아베노믹스의 성과로 보고, 이 중 일부의 활용을 제안
 - 반면 아소 재무대신은 이미 2016년도 추경예산에서 사용하고 있다면서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제시
- 중국경제 둔화, 영국의 EU 탈퇴 등에 의한 세계경제 불확실성 및 이로 인한 엔화 강세 기조가 지속될 경우 수출기업의 수익이 악화되어 법인 세수가 대폭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바, 재원확보 관련 논의에서는 향후 난항이 예상
- 한편, 일반회계 요구총액이 3년 연속 100조엔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세출삭감이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아베 총리는 동 회의에서 소비세 추가인상의 영향도 점검해 나가면서 세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언급
 -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육아, 간병 등 분배 중심의 시책을 주로 제시한 만큼 재정건전화와의 균형이 관건

1.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아베총리가 주요정책으로 제시한 ‘1억총활약사회’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전체 근로자의 4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여 격차를 축소하고, 이를 소비확대로 연결하기 위한 목적이 있음.
 - 참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 공명당, 민진당, 공산당 등 주요 정당이 동 제도의 도입추진을 공약으로 제시
-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인건비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2. 경단련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한 제언

- 경단련은 정부가 검토를 추진하고 있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도’에 대해 일본의 채용관행이나 임금체계를 감안한 제도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일본경제 선순환 구조 확립을 위한 정사원화 강화 및 비정규직에 대한 폭넓은 처우 개선 추진의 중요성을 지적
- 경단련은 제언에서 △직무급을 전제로 한 유럽형 제도의 도입은 곤란한바, 일본의 채용관행에 맞춘 형식, △직무내용 이외, 근무지나 직종 변경에 관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일노동인지 여부 평가,

△비정규직을 위해 임금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정사원화,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처우개선을 제시함.

-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당이나 일시금(보너스)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해야 할 ‘불합리한 사례’도 제시

3. 향후 일본정부의 계획

- 일본정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임금격차 개선 등을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수립할 계획임.
 - 이와 관련 경단련은 (가이드라인에서) 불합리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기업의 노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점검과 개선에

유용한 지표의 마련을 요구

- 일본정부가 동 제도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파견법 등 관련법의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향후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에서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바, 경단련은 이번 제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임.

2-3 일 경제4단체,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TPP 승인을 요청

- 사카키바라 경단련 회장 등 경제단체 대표 4인※이 7.13 총리 관저를 방문하여 가을 임시국회에서의 TPP 승인을 요청하는 요청서를 아베총리에게 제출
 - 제언에서는 TPP를 ‘획기적인 21세기형 경제연계협정’ 이라고 평가하고, 일본의 조기 승인을 통해 ‘미국 등 여타 참가국의 국내절차를 촉진시켜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당에 대승적인 관점에서 신속한 승인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
 - 또한, 경제단체 대표 4인은 일-EU EPA의 연내타결을 요청
-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TPP는 성장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서, 일본이 솔선하여 조기발효의 기운을 고조시킬 것’ 이라며 의욕을 표명함

3 이란 주요 건설기업 동향

□ 정보출처 : 주이란이슬람공화국대한민국대사관

3-1 이란의 건설업체

가. Maskan va Omran Guds company (Guds 주택-건설사)

- Astan Qods Rajavi 소속의 건설 개발 회사.
- 주택 단지 건설 및 개발 활동을 수행함.
- 수행 중 활동 : 대형 건물 프로젝트(35개), 계약 프로젝트(2개), 투자 활동.
- 자현(Jahan) 쇼핑 센터, 마쉬하드 북부 인도, 꾸즈 타워(Quds Tower)와 주거 단지, 마쉬하드 쇼핑 센터, 사르브(Sarv) 상업, 사무실 복합단지 건설 등을 건설 계획 중임.

나. Arme Construction Company (아르메 건설사)

- 이란과 중동 내에서 가장 큰 건설업체 중 하나임.
- 도로, 다리, 터널, 공항, 올림픽 실내 수영장, 올림픽촌, 어저디 스타디움을 포함하는 테헤란 아시안 게임 스포츠 복합 단지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함.
- 산하 회사 및 연계 기관 : Parc des Princes Co, Vanak Park Co, Kamsaz Co, Paziran Co.
- 주요 건설물 : 어저디 스포츠 복합 단지, 칸 다리(Kan Bridge), 바낙(Vanak) 공원도로 고가, 반다르 압바스-루단(Bandar Abbas-Rudan) 도로, 카룬 강(Karoun River) 다리 등.

다. House Construction Investment Company of Iran House (이란 주택 건설 투자 회사)

- 주택 투자 회사의 소속임.

- 670여 개의 병원, 의료 복합 단지 및 총 면적 5 백만 제곱 미터에 달하는 행정 주거 단지의 설계, 건설을 하고 있음.

라. Saze peydar gharn Housing and Construction (Saze peydar gharn 주택 건설사)

- 이란 이슬람 공화국 사법 집행부의 건설부서 소속임.

- 51개의 회사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8개 사는 테헤란에, 31개 사는 다른 주에, 12개 사는 특별 구역 내에 위치함.

마. Islamic revolution mostazafan foundation (Mostazafan 이슬람 혁명 재단)

- 200개 이상의 주택 계획을 수행하였음.

- 아티예 사잔(Atiye Sazan) 프로젝트 관리 지주회사와 5개의 산하 회사들이 이 조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함.

바. Padideh shandiz International Tourism Deveopment Company (Padideh shandiz 국제관광개발사)

- 관광객들을 위한 모든 경제, 상업, 서비스 분야 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삼고 있음.

- 파디데 샨디즈 건설(Padideh Shandiz construction), 파디데 파리안 기구(Padideh Parian Tools), 파디데 키쉬 주식회사(Padideh Kish Int. Co), 파디데 키쉬 전자 상거래 국제 회사(Padideh Kish E-commerce International Company), 아리아 다밤사즈 샤희그(Aria DavamSaz Shargh), 파디데 샨디즈 오락 회사 (Padideh Shandiz Amusement Company) 등 7개의 산하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사. Iranian Atlas Construction Companies Group (이란 아틀라스 건설사

그룹)

- 산업적, 생산적 활동을 사업 목적으로 함.
- 산하회사
 - Shiva Atlas : 설계 및 공학 설계 컨설턴트 전문 기업.
 - Atlas-e-Iranian civil company : 다양한 개발 사업들의 실행 업무에 책임을 맡고 있음.
 - Iran Atlas Kish : 시장조사, 마케팅, 판매를 담당함.
- 아틀라스 쇼핑센터 프로젝트
 - 테헤란 니어바런(Niavaran) 인근에 건설 계획 중임.
 - 테헤란의 1번 구역에 위치
 - 아틀라스 쇼핑센터는 11,000 제곱 미터의 부지에 19개 층으로 설계 됨.
 - 주차장 6개 층, 매장 4개 층, 푸드코트 1개, 레스토랑과 테마파크, 사무실 9개 층으로 구성됨.

아. Tadbir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Group (Tadbir 건설 개발 그룹)

- 철강과 콘크리트 기반 건물 건설에 대한 설계, 컨설팅, 조연, 실행과 파트너쉽 체결
- 사무실 및 주상복합 건물의 건설.
- 복합단지 건설.
- 법정 개인과의 계약서 작성.
- 회사의 목적과 관계있는 공인된 다양한 상품, 장비, 기계의 수입, 수출, 구매 및 판매.
- 국내외에 다양한 부서를 설립하여 외국과 국내 기업 사이에서 대표자 역할을 수행.
- 9개의 프로젝트를 완료 하였으며, 4개의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자. Pardisban

- 회사에 대한 공개정보가 부족함.
- 진행 중인 주요 사업:
 - 스노우 파크, 워터파크, 돌고래 공원, 새 공원, 꽃 공원, 미니어처 박물관, 인공 호수, 다양한 체육관, 회전하는 식당,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는 60여 개의 식당, 3천 개의 주거공간, 5천 개의 상업 매장, 5천 명을 수용 가능한 대 회의장, 6개의 웨딩홀이 있는 카스피안 타워(Caspian tower).
 - 2천 개의 주거 공간이 있는 파르디스반 빌라(Pardisban villas).

차. Iranian Offshore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Company(IOEC)

- 1991년 설립되었으며 테헤란에 본사를 두고 페르시아 만 지역에서 주로 건설 활동을 진행함.
- 연안의 원유 및 가스 산업 분야에서 연안 표면과 일부 수면 밑의 기반 구조에 대한 설계, 건설, 설치 및 산업에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
- 중동 지역 내 통합된 해수면 내,외부 파이프 설치 분야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임.

3-2 이란의 설계 및 감리 회사

가. Iran Group of Surveyors (IGS)

- 1980년에 설립된 최초의 순수 이란인 기업이며 최초로 선박과 화물의 조사 및 관리 감독을 실행하였음.
- 민간소유의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활동 분야를 넓혀옴.
- 건설과정에서 기술적 설계 및 설계도의 세부사항에 따른 안전수준에 적합하며 양질의 장비가 사용되는지 관리 감독함.
- 건설 환경과 사용되는 원자재에 따라 건설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특정 한계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계도를 수정 및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함.
- IGS는 석유 가스 산업, 전자 장비 산업 등과 같은 분야의 수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기술적 측면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음.
- 현재 선적 전 검사와 같은 활동을 통한 석유 가스 생산품, 광물자원, 농산품 등의 수입, 수출되는 화물의 양과 질에 대한 감독, 건설 과정에서 건설 장비에 대한 장비 안전 관리 감독, 건설 감리와 같은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임.

나. Iranian Inspection Company (IRICO)

- 민간 소유의 기업으로 2000년 3월에 설립되었음.
- 석유, 가스, 석유화학, 발전 부문 산업에 특화되었으며 다양한 기술적 감리가 가능한 엔지니어와 관리자를 보유하고 있음.
- 프로젝트의 설계, 건설부터 유지보수 단계와 같은 모든 단계에 대한 품질 보증, 검사 서비스를 제공함.
- 이란 국립 표준 협회 (Iranian 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NSO)로부터 검증 받은 제3 자 감리 기관으로서 이란 정부의 규정에 맞는 수입품, 수출품, 건설 장비, 자재를 관리 감독함.

- 프로젝트 설계 표준과 세부사항을 준수하도록 조립, 건설, 설치와 사전 시험가동의 모든 단계의 과정 동안 프로젝트에 대한 현장 점검, 감시, 회계 감사, 설계 감리 등의 활동을 수행함.
- 건설 계약자의 실수 등으로 인한 규정에 준수되지 않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결책과 제안을 감리 보고서를 통하여 제공함.
- 다양한 지질학적 현장에서의 서로 다른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보유함.

※ (표) IRICO의 대표 프로젝트

프로젝트/계약명	직무 권한 범위	고객	시작연도
만수리 유전개발 사업	프로젝트 전반 감리	Sakhtar Farda Engineering&Construction Co.	2013
사라제 및 슈리제 지역 천연가스 저장시설 건설	기술적 관리 감독 및 품질 통제	이란 국영 가스 회사 (National Iranian Gas Co.)	2009
아살루예 지역 요소 암 모니아 발전소	기술 관리 감독, 품질 통제, 건설 감리, 시험 가동	파르디스 석유 화학 (Pardis Petrochemical Co.)	2012
NIGC 압축기 이송 시스템에 사용되는 터보 압축기 공급	유럽, 우크라이나 생산 과정의 기술적 관리 감독	이란 마프나 그룹 (Mapna Group Iran)	2009

다. Mobin Holding Group

- 이란 및 쿠웨이트, UAE와 같은 중동국가, 리비아, 말리, 튀니지, 알제리와 같은 북아프리카 국가 내에서 건설 및 석유, 가스 산업 관련 사업을 하고 있음.
- 교량, 도로, 터널의 설치, 재건 사업을 전문으로 함.
- 건축 자재 및 건설 현장의 관리 감독을 책임짐.

라. GM-IR (설계& 감리)

- 1981년 설립되었음.
- 이란 계획 관리 협회 (the Plan and Management Organization of Iran) 소속으로 다른 많은 전문 기관의 멤버임.
- 이란 및 해외에서 건축, 구조, 기계 및 전자 공학, 경제, 컴퓨터 기술 등을 전공한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조경, 주거, 행정, 상업, 의료, 종교 및 산업 건물과 공항과 같은 다양한 건물들에 대한 건설 감리에 특화되어 있음.

※ (표) GM-IR의 대표 프로젝트

프로젝트/계약명	직무 권한 범위	고객	비고
쉬라즈 외과 병원	건물 설계 및 건설 감리 전반	쉬라즈 대학 의학 전문 대학	21,000제곱미터 부지의 240개 침상, 이란 내 최초 도입 신개념 병원
타브리즈 종합 전문 요양 기관	설계 검토 및 건설 감리	주택부 (the Ministry of Housing)	4,500제곱미터 부지의 전문 요양기관
아하르 병원 및 칼 라이바르 병원	설계 검토 및 건설 감리	주택부 (the Ministry of Housing)	아제르바이잔 위치 각 병원 127개 병상
타바스 공항 터미널 및 건물	터미널, 관제탑, 소방 시설, 활주로, VIP 시설, 화물 터널, 주차장, 직원 숙소 등의 시설 설계	민간 항공 협회	15만 제곱미터 부지와 23,000제곱미터의 건물 면적

마. IEI (Industrial & Engineering Inspection Co. of Iran)

- 1983년에 설립되었음.
- 이란 내 국제 상거래 과정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마음 편히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 (표) IEI의 대표 프로젝트

프로젝트/계약명	직무 권한 범위	비고
테헤란 지하철 프로젝트	건설 장비에 대한 기술적 관리 감독	테헤란-카라치 행 1,2호선
사우스파르스 프로젝트	1번 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감리	현 프로젝트 내 추가적 사업 관련 최종 협상 진행 중
쉬라즈 지하철 프로젝트	건설 감리, 선적 전 검사	

3-3 OECD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의 주요 내용

1. 개 황

- ◇ OECD는 신흥시장국의 경제성장세 둔화, 원자재 가격의 하락, 무역 부진 등을 감안하여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번 전망치(2015년 11월)에 비해 상당폭 하향 조정
- 미국, 유로지역, 일본의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전망치에 비해 각각 0.5%p(2.5%→2.0%), 0.4%p(1.8%→1.4%), 0.2%p(1.0%→0.8%) 낮춤
- 201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5%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하였으며, 세계 경제성장률은 3.0%로 지난번 전망치에 비해 0.3%p 하향 조정

OECD의 주요국별 경제성장률¹⁾ 전망

	2015	2016		2017	
		금번 전망	2015.11월 전망치와의 차이	금번 전망	2015.11월 전망치와의 차이
세 계	3.0	3.0	-0.3	3.3	-0.3
미 국	2.4	2.0	-0.5	2.2	-0.2
유로지역	1.5	1.4	-0.4	1.7	-0.2
독 일	1.4	1.3	-0.5	1.7	-0.3
프 랑 스	1.1	1.2	-0.1	1.5	-0.1
이탈리아	0.6	1.0	-0.4	1.4	0.0
일 본	0.4	0.8	-0.2	0.6	0.1
캐 나 다	1.2	1.4	-0.6	2.2	-0.1
영 국	2.2	2.1	-0.3	2.0	-0.3
중 국	6.9	6.5	0.0	6.2	0.0
인 도 ²⁾	7.4	7.4	0.1	7.3	-0.1
브 라 질	-3.8	-4.0	-2.8	0.0	-1.8
여타 국가	2.1	2.5	-0.3	3.1	-0.2

주 : 1) GDP의 전년대비 증가율(%), 근로일수 조정)
 2) 회계연도 기준(매년 4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됨)

2. 국별 전망

- ◇ (미 국) 취업자수의 증가로 가계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등 민간수요 주도 경제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2015년 하반기중 대두된 미달러화 강세 및 저유가에 따른 투자 부진 등 부정적 요인들의 과급영향은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취업자수 증가 등 긍정적 요인들의 효과도 노동시장이 완전고용에 근접함에 따라 점차 사라질 것으로 전망
- ◇ (유로지역) 전반적으로 투자가 여전히 부진하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으로 향후 경제성장세는 완만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저유가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며, 저금리 및 유로화 평가절하가 투자진작으로 이어지는 효과도 아직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일부 국가에서 민간부문의 레버리지가 높은 가운데 부실여신이 증가한 점은 통화정책의 과급경로 중 신용채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일 본) 전분기 대비 경제성장률이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최근 민간소비와 수출이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는 등 성장세가 계속 미약
- 최근의 수출 부진은 주요 무역상대국의 경기둔화와 엔화 강세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 (중국 등 신흥시장국) 중국 경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재균형(rebalancing)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
- 재정 및 통화 완화정책의 긍정적 영향이 향후 경제활동에 과급되겠으나, 기존방식 그대로의(standard menu) 투자 및 금융지원 정책이 중국 경제성장에 미칠 긍정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한편, 브라질 경제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높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기존 예상 경로보다 침체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인도에서는 건조한 경제성장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

3. 주요 이슈

- ◇ (국제무역 및 원자재 가격) 최근 심화된 국제무역 부진은 2015년 OECD 회원국들의 경제성장률을 0.5% 정도 하락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원자재 가격의 빠른 하락은 원자재 생산 기업과 수출국가의 자금 가용성과 투자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
- ◇ (글로벌 금융시장) 글로벌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중국 위안화 환율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최근 확대

- 신흥시장국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폭이 크거나 원자재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금융여건이 악화되었는데, 특히 브라질, 러시아, 터키 등 외채 비중이 높은 국가의 경우 환율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4. 정책 권고

- ◇ OECD는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대응만으로는 수요 진작에 한계가 있으며, 통화, 재정, 구조개혁 등 다각적인(collective) 정책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
- (통화정책) 선진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으로 접근하는 뚜렷한 신호가 감지될 때까지 높은 수준의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신흥시장국은 물가 및 자본시장 동향을 감안해 가며 통화정책을 운용
- (재정정책) 저조한 경상 GDP 증가율이 지속될 경우 재정건전화 목표 달성도 어려운 만큼 경제성장 도모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이 필요해 보임
 - － 최근의 재정정책 기조는 미국과 유로지역은 중립적이고 일본은 긴축적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구조개혁 등) 규제완화 등의 구조개혁을 통해 공공부문의 투자지출이 민간에 파급되는 경제적 효익을 제고하는 가운데 신규 투자지출 확대를 병행 추진
 - － 한편, 최근 구조개혁의 추진속도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에서 모두 둔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에 유의

4 쿠웨이트 주요 경제 동향

□ 정보출처 : 주쿠웨이트대한민국대사관

4 쿠웨이트 주요 경제 동향

1. 금년 12월 알 무트라 신도시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 예정(7.11~12)

- 사우스 알 무트라 시티는 주택 28,363 세대를 포함하는 쿠웨이트에서 가장 대규모 주택 프로젝트로, 주거복지청은 지난 6월 이탈리아 Salini와 터키 Kolin 컨소시엄과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사우스 알 무트라 프로젝트는 12개 생활권, 400m² 주택 28,643 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자하라 시티 북서쪽 40km 지점에 위치해 있음.
- 주거복지청은 사우스 알 무트라 신도시개발과 관련 올해 9월 생활권 8개 권역(n5~12), 18,500 필지에 대한 인프라 건설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소, 에너지 설비 등 무트라 신도시 공공시설 건설을 위한 약 60여개 프로젝트에 대한 발주가 예정되어 있고, 금년 12월 알 무트라 신도시에 대한 최초 건축허가가 있을 전망.

2. 지방 정부,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구역 확장 승인 (7.11)

- 지방 정부는 주거복지청이 추진하는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 구역을 서쪽으로 5.52 km²를 확장하여 전체 64.42km²로 승인하였음. 다만, 도로국과 환경청의 승인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종래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시티 부지에는 지방정부 폐차장과 양계장이 있고, 약 12백만개 페타이어를 수거해야 하는 등 많은 장애물이 있어서 프로젝트가 지연되어 왔는데, 이번에 구역을 조정하여 5.52 km²를 확장하여 승인함.
-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지역은 약 4만세대 주택을 제공할 수 있고, 기존 도로망이 있어 이동이 용이하며, 서비스와 공공시설을 신도시에 연결하는 것도 쉬움.

- 또한, 기존 도시지역과 가까워 빠른 시일 내에 프로젝트를 완료할 수 있고, 기존 도심에 대한 인구 과밀을 줄이기 위해 알 압둘라 지역에 여가시설, 몰(mall) 등을 건설할 예정임.

3. 압둘라 프로젝트 구역 확장 후 무트라보다 알 압둘라 신도시 선호(7.13)

- 지방정부가 사우스 사드 알 압둘라 신도시에 대한 구역을 5.52km²를 추가하여 전체 64.42km²로 확장·승인하고, 산업청이 아리야(Arhiya) 지역에 있는 약 12백만개 페타이어를 금년 말까지 이전하기로 한 후에 쿠웨이트 시민들은 알 무트라에 대한 분양신청을 취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4. 주택부장관, 2016. 9월 압둘라 신도시 설계 계약 체결 예정(7.14)

- 아불 주택부장관은 알 라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금년 4사분기에 압둘라 신도시에 대한 설계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2주내에 쿠웨이트 대표단(주거복지청)이 설계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컨설팅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언급함.
- 아불 장관은 신도시 설계 계약이 9월 또는 10월 경에 체결되어, 20개월 내에 설계가 완성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동 기간에 이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를 관리할 쿠웨이트-한국간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함.

5. 쿠웨이트 정부, 석유 부문에 대한 민영화 추진 (7.11)

- 재무부 관계자는 2016.7.10(일) 쿠웨이트는 사우디 아람코가 지난 4월에 발표한 계획과 유사하게 일부 주식을 일반에게 제공하는 등 석유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칼리파 하마다 재무부 차관은 주식 인수에 대한 구체적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쿠웨이트는 석유 부문 주식을 시민들과 외국 투자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참여를 강화하고 국가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 쿠웨이트 정부는 유가가 배럴당 50불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 경기침체가 5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